■ 새학기 '스쿨룩' 코디 어떻게?



신학기를 맞아 스타일리시한 학교생활을 위한 스쿨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야외활동은 물론 등하교 복장으로도 잘 어울리는 아웃도어 멀티제품들이 인기다. 발랄한 아웃도어 스쿨룩을 선보이고 있는 엠리밋의 전속모델 임시완(오른쪽)과 정은지. 사진제공 | 엠리밋

통일감 있는 컬러 스타일링 멀티형 백팩·슈즈로 포인트

가을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다. 방학 동안은 아이들 먹거리 챙기기로 바빴다면 이제는 매일 아침 등굣길 옷차림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패션에도 민감하다. 크게 튀지 않으면서도 밖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깨를 펼 수 있는 멋진 스쿨룩을 연출해 보자. 전문가들은 "컬러로 통일성을 주고 슈즈와 백팩, 모자 등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는 포인트 아이템을 갖추면 등교 준비 끝"이라고 조언한다.

●남아는 '네이비', 여아는 '핑크'

남자아이라면 '네이비 컬러'가 스쿨룩의 정석이다.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티셔츠보다는 포멀한 데님셔츠가 낫다. 빈폴키즈의 '워싱 데님셔츠'는 적당하게 탈색된 워싱컬러가 멋스럽다. '네이비 7부 면 스판팬츠'를 함께 매치하면 딱이다. 허리 전체의 엘라스틱 밴드처리와 스트레치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이 편하다.

신발로는 크록스의 '범프 잇 슈 키즈'를 추천한다. 스니커즈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끈이 없는 슬립 온 스타일이다. 뒤꿈치가 올라와 있어 아이들이 신고 벗기에 편하다.

요즘 유행하는 '스냅백'은 포인트 아이템으로 좋다. 브릭브릭의 스냅백은 액세서리 브릭을 활용해 정면 플레이트와 챙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여자아이는 핑크다. 여러 브랜드에서 여아를 겨냥해 다양한 '핫핑크' 제품을 내놓고 있다. 아놀드파머 주니어의 '스트라이프 배색 카라 원피스'는 스트라이프와 솔리드 패턴의 배색에 소프트한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이 좋다. '아웃포켓 밴딩 스커트'와 매치하면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예쁜 스쿨룩 완성.

폴로키즈의 '배너 스트라이프 백팩'은 배너 스트라이프, '3' 패치, 빅 포니 로고가 발랄한 폴로 스타일을 만들어준다.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헤드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상단 헤드폰 포트도 있다.

●청소년·대학생 위한 멀티 아웃도어 스쿨룩

10~20대 학생이라면 아웃도어와 일상에서 겸용할 수 있는 올어라운드 제품이 스쿨룩으로 좋다. '브로드픽 재킷'은 엠리밋의 스테디셀러이자 시그니처 제품.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기장과 4개의 포켓 디테일로 사파리 스타일을 살렸다. 어깨부분에 따뜻한 느낌의 울라이크 소재를 패치해 세련된 느낌을 준다. 엠리밋 '트래버스'는 학교가방으로 활용하기 좋은 멀티형 백팩이다. 탈부착이 가능한 토트백이 패키지로 구성돼 있어 가방 하나로 두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컬럼비아의 '코하스 바인즈 28' 백팩은 스쿨백으로는 물론 경등산용 배낭으로 활용해도 되는 멀티 백팩제품이다. 가방 등판 쪽의 지퍼를 열면 노트북·마우스, 이어폰, 필기구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비올 때를 대비해 레인커버가 내장됐다.

밀레도 스쿨룩 느낌을 살린 '트레이터 백팩'을 출시했다. 가벼운 반나절 산행과 평상시 백팩으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마모트의 '아스펜 재킷'은 중·고·대학생은 물론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후드가 달린 싱글 트렌치형 재킷으로 캐주얼부터 포멀룩까지 소화가 가능하다. 심플한 색감과 카모플라쥬 패턴 포인트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낸다. 내피나 재킷만 단독으로 착용할 수 있어 간절기에 실용적이다.

노스페이스의 '다이나믹 하이킹 5G BOA'는 편안 착용감, 경쾌한 색상으로 아웃도어 활동뿐만 아니라 스쿨룩 연출에도 활용하기 좋은 신발 아이템이다. 초경량 엔지니어드 메쉬소재가 사용돼 쾌적하고 착화감이 뛰어나다. 끈 없이 다이얼로 죄고 풀 수 있는 보아클로저시스템을 장착했다. 양형모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안락한 침대에서 영화 한 편…해변 안부럽네

'집에서 보내는 달콤한 휴가' 도와주는 리빙 파트너

주말, 연휴라고 해서 꼭 어디론가 떠나야한다는 법은 없다.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홈캉스(홈+바캉스)'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방콕'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침대 위에서 뒹굴며 나 홀로 휴가를 만끽하는 '베케이션(Bed+Vacation)'이란 말도 있다.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여름휴가여행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만들기. '내 집으로 떠나는 주말여행'을 도와주는 리빙 파트너들을 소개한다.

●편안한 매트리스로 호텔 침실의 느낌 그대로

휴식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역시 '발 뻗고 누울 자리'다. 고급호텔 침실의 느낌을 집에서 즐기고 싶다면 좋은 침대가 필요하다. 편안한 매트리스야말로 '방콕여행'을 위한 1등석이다.

씰리 '아스파이어' 매트리스의 특징은 새롭게 개발된 'SRx Ⅱ 포스처피딕 티타늄 스프링'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강철보다 2배 강하면서도 가벼운 티타늄 합금을 사용했다. 신체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감지하고 부드럽게 대응한다. 이리저리 뒹굴고 뒤척여도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씰리침대 측은 "정형외과적으로 최적의 숙면자세를 만들어줘 수면 시 척추 골격의 배열을 올바르게 하고 근육을 회복시켜 숙면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쿨링 섬유기술을 적용해 몸의 열을 분산시키고 땀을 배출해준다.

리모콘 하나로 내 방을 영화관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만카돈에서 선보인 사운드바 'SABRE SB 35'는 32mm의 초슬림형 사운드바와 콤팩트한 서브우퍼로 구성됐다. 풍부한 음량의 멀티채널사운드를 제공한다. HDMI와 블루투스를 통해 편안하게 누워 손쉽게 스마트기기만으로 사운드바를 제어할 수 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속에 담긴 영상과 음악 콘텐츠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안락한 침대에 누워 빵빵한 입체사운드로 영화를 보고 있으면 하와이 해변이 부럽지 않다.



▲청호나이스 '휘카페Ⅳ-엣지

푹신한 매트리스로 호텔처럼
사운드바 하나면 즉석 영화관
원두커피 정수기로 우아하게

●침대 위에서 즐기는 원두커피와 간식의 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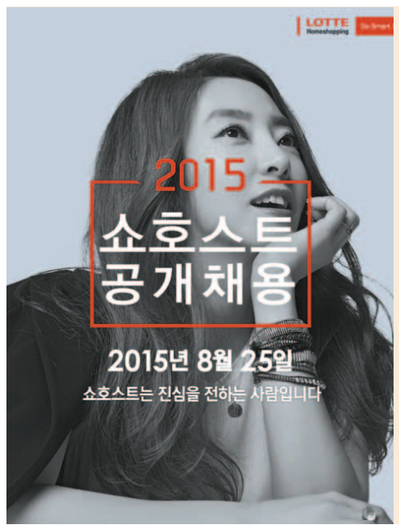
집에서 즐기는 향긋한 원두커피 한 잔도 빼놓을 수 없다. 터치 한 번으로 에스프레소와 아이스커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제품이 있다. 청호나이스의 '휘카페Ⅳ-엣지'다. 초소형 크기에 정수, 냉수, 온수, 얼음은 물론 에스프레소 커피까지 내어주는 팔방미인 제품이다. 최초의 커피 내리는 정수기다. 물속 경도 성분과 잔류염소를 제거한 정제된 물 덕에 커피 본래의 맛과 향, 부드러움을 만끽할 수 있다. 노즐분사 방식을 사용해 아기자기한 튤립 모양의 얼음을 만들어준다.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셨으면 이제 간식을 즐길 차례다. 침대 위에서 귀족처럼 식사하는 호사를 누리고 싶다면 간편하고 깔끔하게 조리할 수 있는 원스톱 쿡웨어가 필수다. 코닝웨어의 '팝인머그'는 스톤웨어 재질로 만들어져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손잡이가 달린 머그컵 모양으로 죽, 스프, 볶음밥, 라면 등 충분한 한 끼 식사 분량을 담을 수 있다. 내부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음식물이나 냄새가 잘 배지 않는다. 먹다가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쉽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베케이션'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침대 위를 뒹굴며 '집으로 떠나는 휴가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영화 관람을 위한 사운드바부터 향긋한 원두커피를 내어 주는 정수기, 쿽 쿠킹 아이템까지 '방콕'의 즐거움을 더 해주는 제품들이 인기다. 사진제공 | 씰리침대



롯데홈쇼핑 '무스펙' 신입 쇼호스트 공채

내달 6일까지 모바일·홈페이지 접수

롯데홈쇼핑이 25일부터 신입 쇼호스트를 공개 채용한다.

이번 공개 채용의 특징은 지원자들의 성별, 나이, 학력 등을 배제한 '무스펙 채용'이다. 자유형식 자기소개 영상 심사 등 이색적인 방식으로 선발한다. 기존 쇼호스트 선발 방식과 달리 웹 페이지는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홈쇼핑 이일용 지원본부장은 "스펙을 초월한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필요한 역량과 창의성을 가진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이번 채용을 기획했다"며 "지난 5월 PD직군의 스펙 태클 오디션에 이어 이번 쇼호스트 채용도 지원 문턱을 낮추고, 정형화된 전형방식을 탈피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9월6일까지 롯데홈쇼핑 '바로TV' 앱, 공식 홈페이지(www.lottehomeshopping.com), 롯데아이몰(www.lotteimall.com)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차 합격자는 카메라, 오디오 테스트를 병행한 '2차 실기 방송역량' 전형에 참가할 수 있다. 스타 쇼호스트 정윤정을 비롯한 방송 전문가들의 심사로 3차 상품판매 PT(9월22~23일), 4차 임원면접(10월6일)까지 서바이벌 형식의 면접으로 진행된다. 4차 면접까지 합격한 지원자는 10월부터 3개월 간 롯데홈쇼핑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과한 인원들은 내년 1월부터 롯데홈쇼핑 쇼호스트로 활동할 수 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PD직군의 무스펙 채용인 '스펙태클 오디션'을 5월에 개최한 바 있다. '홈쇼핑에 최적화된 테마프로그램 기획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필요인원을 선발했다. 양형모 기자



아식스 워킹화 'G1' 가을·겨울 신제품 출시

오리지널·메쉬·샤무드…3가지 버전

스포츠브랜드 아식스코리아가 2015년 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워킹화 'G1(사진)' 10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아식스 워킹화 G1은 지난 시즌 제품에 비해 쿠션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식스 고유 쿠셔닝 기술인 '젤(GEL)'을 장착했고, 고탄성 소재와 두께를 향상시킨 인솔을 사용해 충격 흡수와 안정적인 착화감을 제공한다.

지난 봄·여름 시즌 산뜻한 캔디컬러로 인기를 얻었던 G1은 이번에는 가을·겨울 계절에 맞는 차분한 컬러로 출시됐다. 그레이, 네이비, 버건디, 블루 그레이 등 10종을 베이스 컬러로 사용했고, 코랄 핑크, 민트 등 네온 컬러로 포인트를 살렸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신발 갑피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3가지 버전의 G1을 선보였다. 오리지널 버전과 함께 메쉬 소재를 강화해 통기성을 높인 제품과 샤무드 소재로 보온성을 높인 제품 등을 출시해 소비자 기호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가격은 오리지널 버전과 메쉬 버전이 8만9000이고, 샤무드 버전이 9만9000원.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롯데주류, 도수 15도 '순하리 처음처럼 그린' 출시

롯데주류가 순하리 유자, 복숭아에 이어 '순하리 처음처럼 그린'을 25일 출시한다.

'순하리 처음처럼 그린'은 기존 유자와 복숭아가 달콤한 과일의 맛과 향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부드러운 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 기존 소주의 알코올 향과 쓴맛을 줄이고 부드러운 목 넘김과 깔끔한 맛을 살리기 위해 고급 과당과 쌀 발효 증류원액을 첨가하고, 라임 향을 추가했다. 알코올 도수는 순하리 시리즈보다는 높고 처음처럼 보다는 낮은 15도로 출시한다. 기존 순하리 제품(14도)에 비해 알코올 도수는 높지만 과즙 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출고가는 다소 낮다. 롯데주류는 소주와 같은 가격대에 고급 과실주의 맛을 원하는 고객들을 타깃으로 출시한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와 '복숭아'가 시장에 안착했다고 판단하고, '순하리'의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바탕으로 단맛이 아닌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품을 기획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싸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소형차량 기준)를 9월1일부터 최대 10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9월1일 0시부터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600원에서 6600원, 북인천영업소는 3700원에서 3200원, 청라영업소는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국내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0년 11월 개통됐다.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교통시설이지만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앞으로 15년간 통행료 절감 규모가 약 3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